베 짜서 공부 대답(貢賦對答) 쌀 찧어 요역 대답(徭役對答)
나라에 바치던 물건을 대신함 나라에서 정남에게 세금 대신 시키던 노동을 대신함
헐벗은 백성들이 배고파 설워하네.

원컨대 이 뜻 알으셔 은혜 고루 베푸소서. <제11수>
⇒ 백성들이 고통 받고 있는 현실(당쟁으로 인한 폐해)

말리소서 말리소서 이 싸움 말리소서.
A A B A 구조
지공무사(至公無私)히 말리소서 말리소서 말리소서.
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로움이 없음
진실로 말리곳 말리시면 탕탕평평(蕩蕩平平)하리이다. <제16수>
강조 치우침이 없이 공평함 ⇒ 당쟁을 말려 달라는 간절한 염원

이 외나 저 외나 중에 그만 저만 던져두고
잘못되었거나
하올 일 하오면 그 아니 좋을손가.

하올 일 하지 아니하니 그를 설워하노라. <제18수>
⇒ 당쟁 때문에 할 일을 하지 않는 상황을 비판함

이라 다 옳으며 제라 다 그르랴.
이것이 저것이
두 편이 같아서 이 싸움 아니 마네.
끝나지 않네
성군(聖君)이 준칙(準則)이 되시면 절로 말까 하노라. <제19수>
준거할 기준이 되는 규칙이나 법칙 ⇒ 임금이 준칙이 되어 당쟁을 말릴 것을 소망함

나라가 굳으면 집조차 굳으리라.

집만 돌아보고 나랏일 아니하네.

하다가 명당(明堂)이 기울면 어느 집이 굳으리오. <제26수>
임금이 조회를 받던 정전, 여기서는 나라 ⇒ 당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경고

성 격 : 비판적, 탄식적
주 제 : 당쟁을 일삼는 대신들에 대한 비판과 나라 걱정
해 설

이 작품은 나라에 대한 걱정과 현실에 대한 개탄을 주로 형상화하고 있다. 작가는 51세(1611, 광해군 3년)에 통제우후(統制虞侯)에 임명되었으나, 국정이 어지러워짐을 보고 사직한 후 고향에 가서 당쟁을 그만두라는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작품을 지었다. 우국(憂國)만을 주제로 한 시조 작품으로는 가장 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. 「우국가」에는 이기발(李起渤)의 한역시와 이정환(李廷煥)의 화답가인「비가(悲歌)」가 함께 전하고 있어, 이 작품이 당시의 우국지사들 사이에 널리 유포되었다고 추정된다.

조선 시대에 당쟁은 가장 큰 사회 문제 중의 하나였다. 그런데 당쟁은 조선 시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다를 뿐 어느 시대에나 존재한다. 따라서 이 작품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를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될 것이다.